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김민규 부상 투혼...4강 진출 14일 태국 방콕 티마삿대학교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유도 하프미들급 연장전에서 한국 김민규(푸른색 유니폼)가 폴란드 리마를 상대로 허벅다리걸기 공격을 하고 있다. 김민규는 4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광복절 축포 쏜다”

광주 상무가 광복절 저녁 K-리그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선다.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후반기 두 번째 라운드이자 전체 16라운드인 주중 경기가 15일 오후 전국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광주는 상암구장에서 FC서울과 맞붙는다.



광주, 서울 상대 후반기 첫 승 다짐 전남 상승세...인천 원정 2연승 도전

광주는 우선 공격 최전방에 발이 빠른 고창현과 이길훈, 남익경을 배치하고, 김승용-마철준-여효진을 미드필더로 내세울 계획이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김승용은 상황에 따라 최전방과 미드필드를 오가는 역할을 맡게된다.

최종 수비는 강용-구경현-김영근-이윤섭으로 이어지는 포백 라인으로 구성하고, 골키퍼로는 최무림이 나선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명장 권내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서울은 김은중, 정조국, 박주영 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

지만 패기를 앞세운 이상협과 용병 두두가 투입으로 맹활약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는 특히 상대 전적에서도 크게 밀린다. 올 시즌 상

대 전적은 1무 2패이고, 최근 7경기 연속 무승(2무 5패)으로 초라하다. 컵대회에서는 0-5로 대패한 기록도 있다. 역대 전적도 모두 19번 맞붙어 3승 5무 11패를 기록중이다.

이번 광주-서울전의 관전 포인트는 김승용(22·광주 상무)과 이상협(21·FC서울)의 맞대결이다.

두 선수 모두 박주영의 그늘에 가려진 비운의 공격수다. FC서울 소속이던 김승용은 지난해 군 입대의 길을 택해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이상협은 오랜 기다림 끝에 최근 한시적인 주전 자리를 확보한 상황.

물론 이상협은 정조국, 박주영이 모두 돌아오면 주전 출전이 힘들겠지만 지금까지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스피드도 빠르고 거친 헤딩과 몸싸움으로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까다로운 대상이다.

김승용의 측면 돌파 역시 이상협의 문전 움직임 못지않다. 서울의 아디, 최원권이 단단하게 틀어막고 있는 사이드를 돌파해야만 공격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구FC를 3-2로 꺾고 승점 3점을 챙긴 전남드래곤즈도 이날 같은 시간 인천문학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일단 전남의 상승세가 매섭다. ‘무승부 제조기’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이 붙어다녔지만, 이젠 아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 승점 10점을 쌓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전남은 후반기 새로 영입한 시몬이 두 번째 경기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위력을 드러낸 게 가장 큰 힘이다.

인천의 질주도 만만치 않다. 인천은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차근 차근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다. 후반기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 칼레의 활약이 기대 이상으로 커 인천으로서는 후반기 대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칼레와 시몬이라는 새 외국인 선수로 재미를 보고 있는 두 팀의 용병 대결도 또 다른 볼거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상무 어린이 축구교실인 ‘GSFC 유소년 클럽’ U-10(10세 이하)팀이 한국과 중국, 일본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이 기량을 겨루는 U-12(12세 이하) ‘A3 프렌들리 풋볼 투어’에 참가한다. 경남 남해군 남해스포츠파크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중·일 3개국 14개 팀 선수 276명이 출전해 2개조로 나눠 풀리그를 벌이며 한국에서는 K-리그 U-12 유소년 클럽(제주, 경남 제외)팀이 출전한다.

광주 상무 GSFC 유소년 클럽 U-12 A3 프렌들리 풋볼 참가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 입문을 앞둔 ‘날 샌돌이’ 서정원(37)과 프로축구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는 현역팀(28)이 유소년들의 잔치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이들은 스타들의 어린 시절 축구에 얽힌 에피소드와 축구 철학 등을 소재로 꿈나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A3 프렌들리 풋볼 투어’는 K-리그가 2002년부터 한국 유소년 클럽 발전을 위해 개최해온 유소년 캠프를 국제 유소년 대회로 확대한 이벤트로 한·중·일 3개국의 유소년 축구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14일 광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13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 선발전에서 참가 선수들이 열린 볼 다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고 대회 2연패

추계축구연맹전...한양공고 1-0 제압

호남 축구 명문 광주 금호고가 추계 한국고교축구연맹전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금호고는 14일 오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 43회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전반 22분 미드필더 김도훈이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한양공고를 1-0으로 제압했다.

1975년 축구부 창단 이후 국가대표 신연호, 김관근, 고종수 등을 배출하며 198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금호고는 지난 해에 이어 같은 대회를 2년 연속 제패하며 고교 강호로서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금호고는 전반 22분 안영규가 절묘하게 찰러 준 패스를 김도훈이 페널티 왼쪽 지역에서 받은 뒤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오른발 슈트로 결승골을 넣었다.

최우수 선수에는 이날 결승골을 도운 금호고 안영규가 뽑혔고 득점상은 이 대회에서 모두 5골을 넣은 금호고 공격수 김태환이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슬기 또 한국新

평영 50·200m 이어 100m 기록 경신



에 0.05초 단축했다. 정슬기는 이번 하계유니버시아드 200m 평영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는 등 50m, 100m, 200m에서 모두 한국기록을 경신하는 기쁨을 맛봤다.

예선에서 전체 8위에 오른 정슬기는 지난 12일부터 목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결승에는 불참할 예정이었다.

육상 경보 기대주 박철성(25·삼성전자)은 태국 방콕 인근의 아우타야에서 벌어진 남자 20km 경보 결승에서 1시간24분42초에 골인해 중국의 추야페이(1시간24분37초)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박철성은 무더운 날씨 탓에 지난 5월 제36회 전국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세운 한국신기록인 1시간20분 20초에는 4분22초 뒤졌다.

김현섭(22·삼성전자)도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1시간27분대로 6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은 2005년 터키 이즈미르대회에서 김현섭(22·삼성전자)이 준우승한데 이어 남자 경보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수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교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평영 100m 예선 4조에서 1분09초98의 한국신기록으로 러시아의 코마체바에카테리나(1분09초73)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정슬기는 지난 해 8월 캐나다 밴태평양수영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기록 1분10초03을 1년 만



힘겨운 생존경쟁

설기현·이동국 내일 오전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전에서 별다른 활약 없이 물러났던 설기현(28·레딩FC·왼쪽)과 이동국(28·미들즈브러·오른쪽)이 다시 힘겨운 생존 경쟁에 나선다.

설기현의 레딩은 16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강호 첼시와 정규리그 2차전을 치른다. 같은 시각 이동국의 미들즈브러는 위건 애슬레틱과 원정 경기를 갖는다.

지난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13일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겼던 레딩은 시작부터 잇따라 우승후보와 격돌하게 됐다.

맨유전에서 선발 출격해 57분을 뛰었던 설기현은 다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측면 공격수 글렌 리틀과 스트라이커 르로이 리타의 부상으로 공격 라인에 구멍이 생겨 팀으로서도 설기현이 꼭 필요한 처지다.

영국 언론으로부터 맨유전에서 ‘효과가 약했다’는 평범한 평가를 받았던 설기현은 이번 홈 개막전에서 팀 내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더구나 설기현은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다시 이적설에 휘말렸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14일 이적 시장 흐름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풀럼이 여전히 설기현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풀럼은 수비수 리암 로시니어를 내보내는 대신 레딩에서 이바르 잉기마르손과 설기현을 영입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블랙번 로버스와 1차전에서 후반 38분 교체 투입돼 인저리타임 포함, 고작 13분을 뛴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이동국은 일단 이번 위건전에도 그리 많은 출전 시간을 기대하기 힘들다. 나이저리아 공격수 아예그베니 아쿠부와 아스널에서 데려온 신예 제레미 알리아디에르 투입에 밀려 후반 조커 요원으로 가동되고 있는 이동국은 주전 다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짧은 시간, 강한 임팩트가 절실하다.

레딩과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데다 주전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마저 부상으로 잃어 타격을 입은 맨유는 포츠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카를로스 테베스를 앞세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박진표기자 lucky@

‘U-17 월드컵 축구’ 공인구 독일 월드컵 때 쓴 ‘팀 가이스트’



오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국내 8개 도시에서 펼쳐질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이하(U-17) 월드컵에 붉은 무늬 ‘팀 가이스트’가 공인구로 사용된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2006 독일월드컵축구 때 쓴 팀 가이스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팀 가이스트 L/F’를 이번 대회 공인구로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스트는 독일어로 ‘정신’을 뜻한다.

팀 가이스트 L/F는 조각의 수를 14개로 줄여 매끈하고 완벽한 원형 구조로 설계됐고 고열, 고압 상태에서 조립해 볼 컨트롤을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시킨 제품이라고 아디다스는 설명했다. 또 기존 컬러 블랙/화이트에 레드를 첨가해 청소년 축구의 신선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살렸다.